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메이저리그 데뷔 첫 홈런을 9회 극적인 동점포로 장식했다. 강정호는 4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스타디움에서 계속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메이저리그 방문경기에 선발 출장해 0-1로 뒤지던 9회초 짜릿한 동점 솔로 홈런을 쳐냈다. 강정호가 홈런 볼 궤적을 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타’... 드디어 터졌다

강정호, STL전 9회 동점포로 ML 첫 홈런 신고... 15게임 34타석만

철벽 마무리 로젠탈에 첫 BS 안겨... 선발 출전 강한 면모 팀은 연장 패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메이저리그 데뷔 첫 홈런을 9회 극적인 동점포로 장식했다.

강정호는 4일(한국시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메이저리그 방문경기에 7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장해 0-1로 뒤지던 9회초 선두타자로 나서 짜릿한 동점 솔로 홈런을 쳐냈다.

강정호는 세인트루이스의 마무리 투수 트래버 로젠탈의 초구 커브(약 132km)를 그대로 견어올려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아치를 그렸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데뷔 첫 홈런을 결정적인 순간에 만들어내고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메이저리그 15경기 34

타석 만에 기록한 홈런이다.

로젠탈은 이전 경기까지 11경기에서 8세이브를 올리며 평균자책점 0.77을 찍었으나 올 시즌 첫 피홈런을 내주고 첫 불륜세이브를 기록했다.

지난달 30일 시카고 컵스와 방문경기 이후 나흘 만에 선발 출장의 기회를 잡은 강정호는 동점 솔로 홈런을 포함해 5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시즌 32타수 9안타를 기록한 강정호의 타율은 0.259에서 0.281로 올랐다. 시즌 7타점째를 기록한 강정호는 더불어 선발 출장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며 선발 체질임을 입

증했다.

강정호는 세인트루이스의 선발로 나선 강승우 우완 마이너와 외야를 상대로 첫 두 타석에는 안타를 때리지 못했다. 그러나 7회초 선두타자로 등장해 외야의 2구째 시속 150km짜리 직구를 통타해 깨끗한 좌전 안타를 날렸다.

수비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2회말 맷 에덤스의 높게 뜬 타구를 뒷걸음치며 잡으려다 햇빛 때문에 공을 놓쳤다. 다행히 실책이 아닌 안타로 기록됐고, 실점으로도 연결되지 않았다. 강정호는 연장 10회말 시작과 함께 손 로드리게스와 교체됐다.

팀은 연장 14회말 연장 혈투 끝에 2-3으로 패했다. 한국 KBO리그에서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었던 레다메스 리그가 피츠버그의 6번째 투수로 등판해 14회말 1사후 콜튼 윙에게 끝내기 홈런을 얻어 맞고 패전의 멍에를 썼다. /연합뉴스

키워드는 ‘복수혈전’

KIA, 주중 NC·주말 넥센전

시즌 첫 대결 스윙패 설욕 기회

신종길 복귀로 타선 ‘스피드 업’

4승 추가시 역대 두번째 2100승

■ 프로야구 중간순위 (5월 4일 현재)

팀	승	패	무	승률	연속
1 삼성	19	9	0	0.679	4승
2 두산	16	10	0	0.615	2패
3 넥센	16	12	0	0.571	3승
4 한화	15	12	0	0.556	1패
5 SK	14	12	0	0.538	1패
6 롯데	15	13	0	0.536	1승
7 NC	13	14	0	0.481	3승
7 KIA	13	14	0	0.481	1승
9 LG	13	16	0	0.448	5패
10 KT	3	25	0	0.107	패

음이 두 경기 연속 호투로 4선발 고만을 지우며 선발진에 안정감을 더해줬다. 마무리 윤석민이 버티고 있는 불펜도 한승혁의 파워와 최영필의 노련미, 심동섭·임준섭과 박준표·김태영 등 신·구, 좌·우 조화가 맞아가고 있다.

‘호랑이 군단’의 반격이 시작된다. KIA 타이거즈가 설욕전 원정길에 올랐다. 주중 마산에서 NC 다이노스를 상대하는 KIA는 주말 목동으로 이동해 넥센 히어로즈와 대결을 갖는다. 중위권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팀들과의 ‘스윙 시리즈’다.

공교롭게도 두 팀은 KIA에게 올 시즌 스윙패를 안겨준 상대다. KIA는 6연승으로 2015시즌 스타트를 잘 끊었지만 4월7일 시작된 NC와의 홈 3연전에서 모두 승을 내주며 첫 스윙을 기록했다. 그리고 서건창·이택근의 부상이 겹치면서 고민 많던 넥센에게 3승을 내주면서 비를 바라던 넥센 영점염 감독을 웃게 했었다.

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열세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KIA는 지난해 NC전 5승11패, 넥센전 4승12패를 기록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기싸움에서부터 밀리면서 허무하게 승리를 내주곤 했다. 올 시즌도 첫 만남이 좋지 못했다.

KIA에게는 위기의 ‘스윙 시리즈’지만 지난 대결보다는 공·수·주에서 짜임새가 더 좋아졌다. 서재

외야를 중심으로 수비와 주루도 업그레이드됐다. 주전들의 줄부상 속에서 김호영, 이은종이 빠른 발로 넓은 수비 범위를 과시하면서 외야의 스피드를 업그레이드했다. 빨리진 외야에 파워도 추가된다.

시범경기 최종전에서 우측 견갑골 골절 부상을 입었던 외야수 신종길이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이호신을 대신해 4월 마산으로 가는 1군 선수단 버스에 올랐다. 신종길이 돌아오면서 KIA 타선의 스피드와 파워가 동시에 강화될 전망이다.

관중석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신진급 선수들의 두려움 없는 질주와 깜짝 활약도 KIA의 보이지 않는 전력이기도 하다.

KIA는 앞으로 4승을 추가하면 프로야구 역대 두 번째로 2100승 고지를 밟는 팀이 된다. 난적과의 승부를 위닝 시리즈로 가져오면서 2100승을 채우는 게 KIA에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마운드에서는 험비의 아개가 무겁다. 험비는 지난주 유일하게 선발승을 기록했지만 피칭 내용은 좋지 못했다. 갑작스런 난조와 큰 것 한방에 흔들리곤 했다. 손발이 맞지 않은 중심타선도 변수다. 나지완의 침묵 속 최희섭의 방망이도 무뎠지면서 필코 이범호의 부진이 가중됐다. 공·수·주의 핵심 자원인 유격수 강한울의 플러코스터 플레이도 고민이다.

자신감과 집중력이 필요한 험난한 한 주가 KIA를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감’ 잡은 박인비

LPGA 노스텍사스 슛아웃 시즌 2승... “올 목표는 커리어 그랜드슬램”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노스 텍사스 슛아웃에서 2년 만에 패권 탈환과 동시에 시즌 2승째를 수확한 박인비(27·KB금융그룹)는 퍼트의 자신감을 회복해 촉매를 들 수 있었다고 평했다.

박인비는 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델러스 인근 어빙의 라스 콜리나스 컨트리클럽(파71·6462야드)에서 끝난 대회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6개를 쓸어담는 괴력을 뽐냈다. 최종 합계 15안타파 26타를 친 박인비는 박희영(28·하나금융그룹), 크리스티 커(미국·이상 12안타파 272타)를 3타차로 제치고 통산 14번째 LPGA 투어 트로피를 차지했다.

2년 전 이 대회에서 우승할 때 기록한 13안타파 271타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낸 박인비는 “많은 한국팬의 격려에 힘을 낼 수 있었다”며 골프장을 찾은 재미동포들에게 감사의 뜻을 건넸다.

다음은 박인비의 문답.

-오늘의 승부처는.

▲12번 홀(파4)의 아이언샷과 15번 홀(파4)의 퍼트가 중요했다.(박인비는 두 홀에서 버디를 낚아 승기를 굳혔다.) 4번 홀(파3)과 5번 홀(파4)에서 짧은 거리의 퍼트를 놓쳐서 오늘 퍼트가 안 되는가보다 생각했는데, 후반 2개 홀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퍼트에 성공했다. 9번 홀(파4)에서의 롱버디 퍼트도 우승에 큰 힘을 보탤었다.

-나를 연속 60대수 타수를 썼다. 올해 최고의 경기 내용을 보였는데.

▲이번 대회 나를 중 시를 동안 평균 퍼트 수 20대를 기록했다. 올해 그렇게 퍼트 기록을 내본 적이 없

다. 20대 평균 퍼트를 기록하는 것은 스코어 유지에 아주 중요하다. 매주 이런 기록을 내면 우승에 가까이 갈 수 있다. 퍼트와 샷을 더욱 가다듬어 여름에 더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다.

-경기 내용이 좋아진 원인을 꼽는다면.

▲퍼트다. 이번 주 퍼터를 교체했다. 지난 몇 주간 드라이버와 아이언샷을 잘 날리고도 퍼트가 좋지 않아 방식을 약간 바꿨다. 그 결과 이전과 전혀 다른 결과를 얻었다.

-롯데홈쇼핑에서 마지막날 입었던 것과 같은 옷을 입은 이유는.

▲그날 김세영에게 연장에서 지긴 했지만 내가 못했듯이 보다는 김세영에게 너무나 큰 행운이 따랐다.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준우승도 값있다. 일부러 징크스를 만들고 싶지 않았고 오히려 같은 옷을 입어 떨어버리고 싶었다.

-올해 목표가 있다면.

▲세계랭킹 1위 탈환도 좋고(현재 2위) ‘올해의 선수’ 수상도 좋지만 내겐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이 더 중요하다. 브리티시 오픈 우승이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에 큰 의미를 지닌다. /연합뉴스

